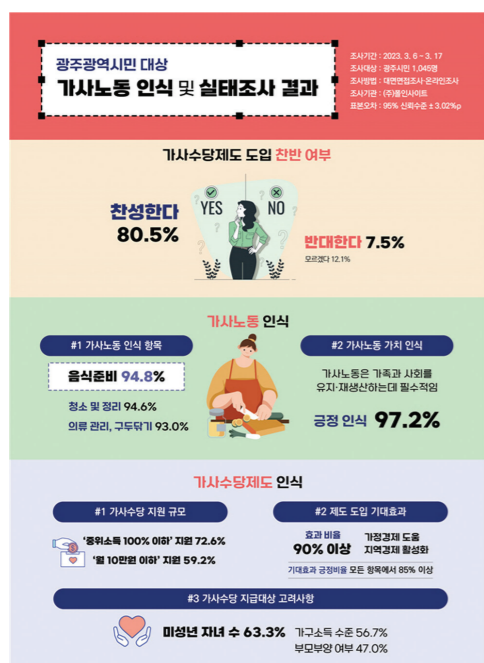


광주시민 10명 중 8명 “가사수당 도입 찬성”

가사노동 인식·실태조사...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분담 중위소득 100% 이하·월 10만 원 이하 규모로 지원이 적당



광주시민 대부분은 가정에서 이뤄지는 일상적인 일과 돌봄·양육 활동을 모두 가사노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사노동이 가족과 사회를 유지·재생산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인식했다.

가사수당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사전업자(72.6%)에게 지원하고, 규모는 월 10만원 이하(59.2%)로 지원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광주시민 90% 이상은 가사수당제도 도입의 기대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정경제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가사노동 실태조사 결과 광주시민의 평일 가사노동은 평균 2.8시간, 주말과 휴일에는 평균 4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가사노동 분담은 여성이 56.6%, 남성 24.3%로,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사노동은 음식 준비(94.8%), 청소·정리(94.6%), 의류관리·구두닦기(93.0%) 등이 주를 이뤘다.

김영선 광주전략추진단장은 “가사노동과 가사수당에 대한 높은 인식, 기대감이 매우 긍정적”이라며 “다양한 형태로 시민 의견을 수렴, 정교하고 탄탄한 제도 설계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와 시민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광주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플인사이트에 의뢰해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표집으로 대면 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2%p다. 김재환기자

“무안공항 정기노선 중단시간 내 유치하자”

김영록 전남지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책 등 당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0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중단시간 내 정기노선을 유치하라”고 지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무안국제공항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것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고마움을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당시엔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제주항공 등 노선을 유치해 이용객이 90만명을 넘었다”며 “지급처럼 공항 재활성화를 위한 초기 단계에선 항공사와 공항 이용객 등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기노선 유치를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독려했다.

김 지사는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오는 6월 방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주변국들도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일본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안전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수산인과 함께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영록 지사는 최근 발생한 사무관리비 횡령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김영록 지사는 “도정을 신뢰하고 지지해준 도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감사관실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명확히 규명하고,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대책까지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총선D-1년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광주·전남은 거야(巨野) 민주당의 심장이자 텃밭이지만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에 역대 최고 득표율을 안겨주며 심상찮은 바닥민심을 보여줬다. 광주·전남의 총선D-1년 분위기를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주]

민주당 심장이자 텃밭인 광주·전남, 정치지형 변화 오나

민 지지도 추락 무당층보다 낮아 독점구도 위기감 ↑尹·與 ‘심판론’ 우세할 경우 야당 ‘민 썩쓸이’ 전망도 ‘이재명 체제’ 물갈이 전망 속 안정론·탕평론에 무게

내년 4·10 총선 광주·전남 최대 관심사는 민주당 독점체제가 유지될 지와 현역 생활올이다.

민주당에 대한 절대적 지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난해 대선과 지선이 준교훈 중 하나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정부와 여당 심판론이 거세게 일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과 지지층 이탈이 계속될 경우 민주당 독점구도는 다시금 반복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역 생활올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 ‘누가 더 못하느냐’에 달린 민주당 독점 체제

광주·전남은 오랜 기간 민주당계 독점이 이어진데다 2020년 21대 총선에선 ‘문재인 신드롬’에 휩쓸려 광주·전남 18석을 싹쓸이했지만 최근 ‘무당층보다도 낮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올 만큼 분위기는 심상찮다.

광주·전남은 지난해 3월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12.7%와 11.4%, 6월 지선에선 국민의힘 광주지사, 전남지사 후보에 각각 15.98%와 17.70%의 득표율을 안겼다. 보수정당 역대 최고 득표율이다.

지역균형발전 역행과 부동산 정책 실패, 현안 표류 등에 따른 민주당 실망론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국힘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하지만 정부·여당 심판론이 강하게 일 경우 민주당 초강세인 광주·전남에서의 결과는 불보듯 뻔할 것이라는 예측도 만만찮다.

현 정부의 검찰 편향적 인사와 굴욕외교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지난 2월 경상수지가 11년 만에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 성적표도 좋지 않아 내년 총선에서 정부 심판론이 우세할 것이라는 여론이 높다.

시사저널이 조원씨앤이에 의뢰, 지난 3~4일 전국 성인남녀 2002명에게 물은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2%p) 응답자의 55.4%가 ‘정부 심판론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답해 ‘이재명 민주당 심판론’(38.9%)을 앞섰다.

공진성 조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민주당의 텃밭 독점력이 약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평가는 상대적”이라며 “정부, 여당의 인기가 높다면 총선에서 야당이 불리하겠지만 1년을 앞둔 현 시점에서 보면 야당에게 불리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서진정책 재개되나...이정현·천하람에 쏠린 눈

보수정당의 호남 포용, 즉 ‘서진(西進) 정책’도 눈여겨볼 문제다. 중도층 정찰전인 관건인 상황에서 호남 포용은 곧, 중도 확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김중헌 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비례대표 후보에 호남 출신을 4분의 1 이상을 우선 추천한다’고 공언했는데, 실제 성사 여부가 관심이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 광주·전남에서 ‘최소 3석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하람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전 새누리당 대표)이 키맨들이다.

공교롭게도 모두 순천에 기반을 두고 있어, 천 위원장은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곡성 출신 이 위원장은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에 출마할 것이라 관측이다.

최근 대통령 부부가 순천만 국가정원 행사에 참석한 것도 내년 총선을 우회 지원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는 까닭이다. 이준석 전 대표 또한 순천을 자주 찾는 등 서진정책의 구름판 역할을 하고 있다.

◇ 비명계 ‘당내 지분’, 생활 보증수표(?)

‘공천=당선’이라는 등식 탓에 ‘뜨거운 경선, 싱거운 본선’은 오랜 기간 되풀이돼 왔고, 피 터지는 경선 과정에서 현역 물갈이는 늘 두 자릿수를 기록해왔다.

16대 61%, 17대 66%, 18대 52%, 19대 35%, 20대 83%가 ‘새 얼굴’로 교체됐다. 19대 총선만 현역 중진들이 대거 국민의당 바람을 타면서, 과반 생활올을 보였다.

내년 총선 역시 지역 국회의원들의 무능



과 정치력 부재에 따른 낮은 존재감에 민심 이반(離反)이 심각한 데다 친이재명, 비(非)이재명계 간의 편가르기식 진영 논리에 대한 피로감도 극에 달해 현역 의원 생존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민주당 인적 쇄신을 전환점으로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사법 리스크로 사퇴 압박을 받은 이 대표가 비명계와 당 지도부 지분을 나눈 데다 공천TF 단장에 비명계 이계호 의원을 임명하면서 탕평과 원팀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공천권의 성패는 계파 싸움이 아닌 후보 경쟁력에 달려 있다는 긍정적 해석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현역 의원들은 육성 가리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현역 교체를 위한 무리한 공천을 할 경우, 지역 정치권의 거부감이 클 뿐더러 공천 잡음으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다”며 “민주당 바람을 타고 국회 배치를 단 의원들 중 무능한 지역구를 중심으로 거센 도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물갈이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공 교수는 “이 대표가 비명계와 지분 타협을 한 것 같고, 비명계가 공천TF 단장을 맡으면서 친명계나 강성당원들의 영향력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그럴 경우 (경쟁력 갖춘) 현역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선욱기자

한국연금진흥재단
Korea Labor Pension Insurance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복합서비스 제1인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금액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합 129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